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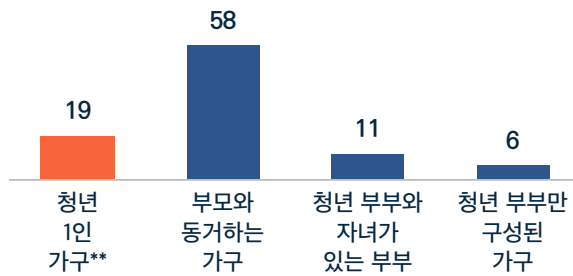
2



청년층, 혼자 살고 있는 '1인 가구' 19%

-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청년(만19~34세)이 속한 전국의 3,018가구를 대상으로 한 '청년층 생활 실태 및 복지욕구'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 '1인 가구'는 전체 청년이 속한 가구의 19%로 나타남
- 그밖에 청년 가구 형태로는 '부모와 동거하는 가구'는 58%, '청년 부부와 자녀가 있는 부부' 11%, '청년 부부만 구성된 가구' 6%로 나타남

[그림] 청년이 속한 가구(유형별, 상위 4위) (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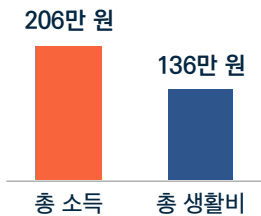


*자료 출처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'보건복지포럼 6월호, 청년 가구의 경제 현황과 지원 방안' 2020.06
(한국보건사회연구원,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, 2019년 기준 만 19세~34세 이하, 남녀 청년 3,018명)
**청년 1인 가구는 청년 독립 가구를 말하는데, 가구주가 부모나 본가에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고 스스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를 의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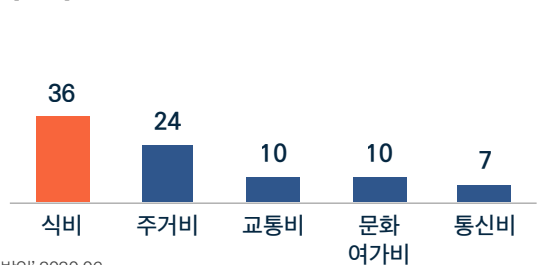
● 청년 1인 가구 월 평균 총 소득, '206만 원'

- 청년 1인 가구 월 평균 '총 소득'은 206만 원, 월 평균 '총 생활비'는 64%인 136만 원으로 각각 나타남
- 총 생활비 중에서 '식비'가 36%(50만 원)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, '주거비' 24%(32만 원, 월세 24만 원), '교통비' 10%(14만 원), '문화여가비' 10%(13만 원), '통신비' 7%(10만 원), '교육비' 2%(3만 원) 순임
- 청년 1인 가구의 총 부채는 639만 원이며, 부채가 있는 청년의 경우 총 부채는 3,105만 원으로 나타남

[그림] 청년 1인 가구 소득과 생활비(월 평균) (만 원)



[그림] 월 생활비 유형 (%)



*자료 출처 : 한국보건사회연구원, '보건복지포럼 6월호, 청년 가구의 경제 현황과 지원 방안' 2020.06
(한국보건사회연구원, 청년층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, 2019년 기준 만 19세~34세 이하, 남녀 청년 3,018명)